

한국 산업용 자동제어 업체의 국제화 방향

장 승 철
LG 하니웰(주)
공장제어사업UNIT
시스템영업실장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장치산업계에서도 자동화를 통한 자사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선결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한 회사 내의 인적 자원의 육성 및 산업용 자동제어 전문업체를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에서 축적된 중공업, 건설, 엔지니어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 해외 장치산업에 대한 턴키방식의 프로젝트 수행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은 국내 자동제어 업체의 숙원이며, 제품, 기술, 가격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도 제공될 수가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 산업용 자동제어 업체의 국제화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전문업체의 역할

전자, 반도체, 통신 등의 기술이 총망라된 산업용 자동제어 제품은 일반 가정용 소비재 제품과 달리 고도의 정밀성과 안전성은 물론 향후를 대비하는 확장성과 간편한 유지보수 등 제품을 선정할 때 수많은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우리의 제품력 즉, 기술수준은 선진기술과 비교해 보면 형편없이 낮은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으며 그나마 있는 기술 역시 해외 유명업체와 기술도입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과 이를 통한 응용기술이 전부이다.

따라서 향후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추어서 중점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기술 강국들로부터 핵심기술 습득을 위해 국가별, 제품별, 기술별 현황 파악을 통해서 향후 우리 업체가 경쟁성 우위 입장에서 보유할 수 있고 기술 중속을 피하기 위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기술 강국들로부터 핵심기술 습득을 위해, 국가별, 제품별, 기술별 현황 파악을 통해서 향후 우리 업체가 경쟁성 우위 입장에서 보유할 수 있고 기술중속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전문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 산업 플랜트용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좀더 공정한 경쟁이 될수 있는 환경 및 풍토조성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만 이를 발판으로 하여 국제화된 선진 전문업체로의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둘째, 핵심기술 습득을 위한 대상, 즉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제품의 개발단계부터 판매, 유지 보수 등 모든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가장 중추적인 핵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성 및 강화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선진기술로의 진입과 더불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기술과 인적자원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 국내의 시장에서 팔릴 수 없다면 이는 사상누각과 같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상품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의 마케팅 전략 수립도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업체는 국내의 협력 회사를 통한 제품별, 기능별 수평적 분업을 활성화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하여야 한다.

정부지원 및 역할

산업용 자동제어 업체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정부로서는 업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국내의 활동은 물론 낙후된 산업용 자동제어 업계의 제품,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 규모이상의 업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 산업 플랜트용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좀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환경 및 풍토조성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만 이를 발판으로 하여 국제화된 선진 전문업체로의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의 역할

국내 산업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그동안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주요 설비들의 충분한 기술 개발의 기회를 갖지 못한채 선진국으

로부터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엔지니어, 운전자 및 보수요원들이 외국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국내 기술력 및 제품을 경시하는 풍토가 깊이 내재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점은 국내 업체들의 기술개발 의욕과 투자 심리를 반감시켰으며 아울러 기술 종속 관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화 시대에 기술의 자립도는 최우선 과제며 이를 위해서는 각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요원들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약하나마 독자 기술력 개발에 노력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모든것이 변하고 있고 정체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급변하게 변화하고 도전하는 국제 환경에서 경쟁을 통한 사업영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업체, 정부, 고객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만이 국제화에 임하는 바른 자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